

‘낭만 문화도시 여수’ 시민 함께 만든다

문화도시 시민 100인 원탁회의
문화 인재 육성·자원 확충 방안
섬 문화-도시 교류 활성화 토론
아이디어 도출 조성 계획 반영



지난 3일 여수 히든베이 호텔에서 열린 100인 원탁회의에 참석한 시민 패널들이 조를 이뤄 문화도시 여수 디자인을 위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가 시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항구네 섬, 섬 낭만문화도시 여수’를 만들기 위한 시민 100인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항구네 섬, 섬 낭만문화도시 여수’는 여수시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문화도시로 함께 성장하고, 공유하며, 함께 만들고, 즐기는 문화도시 여수를 의미한다. ‘함께 문화도시를 만들어가자’는 뜻이다.

지난 3일 히든베이호텔서 열린 100인 원탁회의에 참석한 시민 패널은 시민 공모를 통해 모집됐으며 남녀노소 세대별, 직업별 등 여수시민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석한 패널들은 함께 성장하는 문화도시 여수를 위해 지역문화 인재 육성 방안, 지역 문화자원의 확충과 자원의 공유 방안, 문화예술 협업 활성화 방안 및 지원정책, 시민 및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를 위한 정책 방향, 섬 지역 문화 특색화와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방안 등 5개 주제로 브레인 스토밍을 통해 아이디어를 찾아냈다.

이와 함께 문화도시 여수라는 큰 배를 타고 있는

선원으로서 코로나19와 오버투어리즘,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문제에 맞서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로 순항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오버투어리즘은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도시를 점령하고 주민의 삶을 침해하는 현상이고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된 구도심 활성화로 사람과 돈이 몰리면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문화도시 시민 100인 패널은 향후 문화도시 여

수를 만들어가는 시민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며, 원탁회의에서 나온 의견은 여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열린 토의에 임하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며 “여수시민 100인 패널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화도시 여수 건설에 관심을 가져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광양시 불필요한 사업 폐지 ‘시책일몰제’ 시행

폐지 대상 전수 조사 행정 낭비 제거

광양시는 실효성이 거의 없거나 예산 낭비 등의 요인이 되는 불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폐지하는 ‘시책일몰제’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시책일몰제’를 연중 운영하며, 부서별 시책·사업·행사 등에 대한 일몰대상 여부를 전수 조사해 행정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관행적 사무는 과감히 폐지할 방침이다.

일몰대상은 ▲목적지 이미 달성된 시책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시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 요인이

된 시책 ▲그 밖의 행정 환경 변화 등으로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이다.

시책일몰제는 부서장 판단하에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자체일몰’과 광양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심의일몰’로 구분되며, 자체 판단이 어렵거나 정책 결정이 요구되는 시책은 심의 일몰을 거쳐야 한다.

김복덕 광양시 기획예산실장은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관행적·비효율적 시책은 과감히 폐지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구례군 농산물 홍보영상 촬영 스튜디오 문 열어

구례군은 농업인들이 직접 농산물을 찍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농산물 촬영 스튜디오를 5월부터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구례군은 농업기술센터 야생화연구소 2층에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농업인들이 정성스럽게 기른 농산물과 가공품을 전문 장비로 촬영할 기회를 무료로 제공한다. 청년 농부 크리에이터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스튜디오를 구축했으나 청년 농부에 국한하지 않고 구례에 거주하는 농업인 누구나 스튜

디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군은 스튜디오 운영을 통해 모바일 쇼핑 유행에 대응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의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최근 농식품 온라인시장이 급성장했다”며 “농산물 촬영 스튜디오가 우리 군 제품의 판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여수시 6월까지 전 공직자 2000명 토지 투기 여부 전수조사

도시개발 지역 4곳 정밀분석

여수시가 오는 6월 말까지 시 공직자 2000명을 대상으로 토지 투기 여부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여수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전국적으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전남도와 합동으로 개발지역인 만흥, 죽림1지구, 소재, 여천역 주변 4개 도시개발지역을 정밀분석한다.

주로 개발사업지구 지정이나 사업 시행 이전 3년간 토지 거래 내역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기간은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로 정했다.

시는 조사를 위해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총무과, 세정과, 민원지적과, 도시계획과, 공영개발과 등 6개 부서 14명의 자체 조사단을 구성하고, 전남도 합동 조사본부를 중심으로 투기 전수 조사에 나선다.

앞서 전 공직자에 대해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아 조사 대상 사업 지구별 토지 거래 및 취득 내역을 심층 조사하고 집중 분석해 투기 의심자를 선별할 방침이다.

또 조사대상 기간 내 해당 지역 토지 거래를 한

공무원에 대해 자진신고센터를 5월 14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조사로 공무원의 위법 사실 등 잘못이 드러나면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한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공직자가 비공개된 내부정보로 부당 이익을 취하는 일은 공직사회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고 시 행정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순천시 여순사건 특별법 촉구 민관협의회 구성

유족·시민단체 등 위원 13명 위촉

순천시가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와 소통을 위해 ‘여수·10·19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5일 순천시는 여수·10·19 민·관협의회의 위원으로 유족과 시민단체, 연구자,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13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여수·10·19 민·관 협의회는 민관이 상생하는 공론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주로 여순사건의 특별법 제정 촉구 업무, 진실규명 및 추모·교육·사업에 관한 효율적인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여순사건을 전국화할 계획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그간 여수·10·19 특별법 제정과 추모사업 등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그 노력의 정점을 찍는 일에 민관협의회가 앞장서 주길 당부한다”며 “민관이 상생하는 협의회를 통해 평화의 울림이 순천에서 지구촌을 강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위촉식을 가진 후 허석 순천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여수·10·19 민·관협의회. <순천시 제공>

BS삼총사와 즐기는 ‘랜선 어린이날’ 운동회



보성초등학교 3학년1반 학생들이 지난 3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열린 소규모 운동회에 앞서 정정당당한 경기를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 유튜브 통해 추억 선물

보성군은 ‘랜선 어린이날’을 지역 어린이들에게 선사하기 위해 특산물 캐릭터 BS삼총사와 보성초등학교 3학년1반 학생들이 소규모 운동회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BS삼총사가 준비한 이번 어린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대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보성군 공식 유튜브를 통해 학생들에게 ‘랜선 어린이 날’을 선사하기 위함이다.

3학년1반 학생들과 BS삼총사가 펼친 소규모 운

동회는 정정당당하게 모든 경기에 임할 것이라는 선서를 시작으로 승부차기, 춤 따라 하기, 계주, 박터트리기 등의 경기로 채워졌다. BS삼총사와 보성초등학교 3학년1반이 함께한 소규모 운동회는 다음 주 보성군 공식 유튜브에 업로드 될 예정이다.

한편, 보성군 특산물 캐릭터 BS삼총사는 보성 대표 특산품인 보성녹차와 벌교교막, 보성키위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우리동네 캐릭터에서 대한민국 캐릭터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